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핵심 구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15

선별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13-16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그들의 평소 성품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긴 하루의 가르침,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혹은 이혼에 대한 민감한 논의가 그들의 반응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성숙한 주제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천국에서 자신들이 맡게 될 역할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어린아이들로 인해 주의를 분산시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방향에 불쾌해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그 위계에 관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불쾌해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게 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다.” (마가복음 10:14-16).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구현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만큼 작았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 계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여,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시므온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내 눈이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25-32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은 마음과 생각이 순수했습니다. 냉소, 편견, 인종 차별, 민족주의, 탐욕, 증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다른 결점들이 전혀 없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할 마음의 순결함과 사랑, 그리고 신뢰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평화로운 왕국의 환상은 “아이와 같은” 마음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 곁에서 놀며, 젖 떼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내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멸하는 자가 없으리니, 이는 땅이 바다를 물이 덮음 같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가득할 것임이라.” (이사야 11:6-9).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